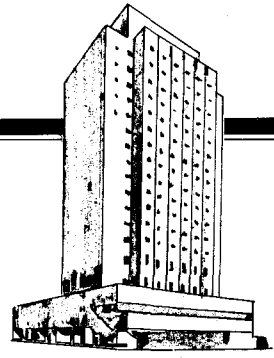


소 식

기관단체



■ 축산기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수입 추천요령

농림수산부는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타일 등의 관세를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478호, '88.7.1)에 의거 축산기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수입추천요령을 8월 22일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공고

제1조(적용물품 등)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 한계수량 및 추천기관은 별표1과 같다.

제2조(용도제한) 이 요령의 적용을 받는 수입물량은 실수요자용에 한한다.

제3조(신청자격) 품목별 할당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품 명	신청대상자
냉각기, 착유기, 임신진단기 및 PSS 측정기, 등 지방 측정기	○ 해당품목을 이용할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
조란선별기, 부란기	1. 양계농가, 부화업자 2. 양계산물 유통종사자 (단체, 축산업협동조합 포함)

제4호(추천서) 추천단체장은 할당 관세 적용 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일부터 적용한다.

② (유효기간) 추천 한도량에 대한 유효기간은 1988년 12월31일까지 수입신고된 물품에 한한다.

관세율표 번호	품 명	용 도	세율 (%)	추천 한도량	추천단체
8418	냉각기	축산용의 것에 한함	15	1,400대	한국낙농육우협회
8433	조란선별기	〃	10	100	대한양계협회
8434	착유기	〃	10	300	한국낙농육우협회
8436	부란기	〃	10	20	대한양계협회
9018	임신진단기 및 PSS측정기	〃	10	200	대한양돈협회
9031	등지방측정기	〃	15	100	대한양돈협회

참조

필요한 양추가께서는 9월30일까지 본회에 수입추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신청수량 과다시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하게 배치할 계획임).

■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약품 첨가사용 기준 개정

농림수산부는 농림수산부고시 제86-18호('87.6.27)를 다음과 같이 8월2일 개정 고시했다.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약품 첨가사용기준 개정고시

대상배합사료 품 명	단									
	병아리용						육 계 용			
	육계제외	전기	중기	후기 (I)	후기 (II)	중계용	신란계 용	중송아 지용	큰송아 지용	비육우 용
리 바 텍 스	1~5	1~5	1~5	1~5	-	1~5	1~5	-	-	-
버지니아마이신	20~50	25~50	25~50	25~50	-	-	-	-	5~20	5~20
록 사 손	125	125	125	125	-	-	-	-	-	-
실파디메톡신	75	75	75	75	-	-	-	-	-	-
오르메트프림	-	-	-	-	-	-	-	-	-	-

■ 양계산물 수급조절방안 대책회의



양계산물 수급조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지난 8월11일 농림수산부 회의실에서 생산자와 관련업체에서 9명이 모인 가운데 농림수산부 중소가축과에서 열렸다.

이날 생산자들은 계란의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기업이나 대단위 양계장 신설을 억제하여 도시 대자본의 참여를 막아야 하며, 생산이 과잉될 때 노계를 처분할 길이 막혀 적기에 노계를 도태하지 못해 계속적인 생산과잉에서 오는 가격하락을 막을 길이 없으므로 노계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노계처리 도계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계란집하장을 수원, 광주 2곳에 설치하는 것은 전국적인 물량을 움직이기는 너무 적어 내년에는 전지역에 걸쳐 집하장을 설치하도록 지원을 하여 생산자가 공판장을 통하여 출하하도록 유도하고, 규격관과 포장 및 생산자 표기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상품가치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계육의 생산과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육계는 병아리가 과잉생산됨으로써 병아리 과잉입추를 유도하게 되어 육계 역시 종계를 도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도계장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또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식되고 있는가를 추정하지 못하여 과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격, 수요, 생산량에 대한 필요성 역설과 더불어 실용육계 수수의 조절보다는 종계를 통하여 조절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GPS, PS조절과 수입종계 수수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건의하였다.

또한 양계산업은 계열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에는

대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책임부서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림수산부 중소가축과장은 종계수입문제는 적절히 조정하겠으며, 노계를 뽑을 수 있는 도계장 설치에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서 양계업계에 가장 큰 문제점인 통계자료 확보는 지금 시험중인 부화통계를 연말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정착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천안양계업협동조합 창립총회



천안지역 양계업협동조합 창립총회가 지난 8월19일 천안 평화예식장에서 조합원 55명과 관계기관, 유관업체 및 관련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양계업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업종별 조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북지역에 이어 천안, 천원, 온양, 아산, 연기 일원의 산란계업자 55명을 중심으로 7월20일 발기인 대회를 갖고 이날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관(안)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를 수정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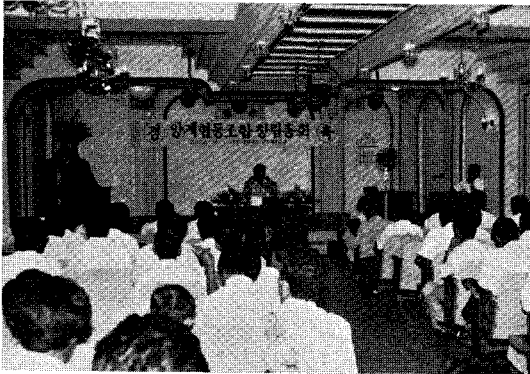
이어 임원선출에서는 추진위원장이었던 김경렬씨가 초대조합장에 선출되었고 이사에는 신재욱, 최상욱, 김종고, 윤용린, 최성필씨 등 5명이 감사는 박인기, 김종성씨 등 2명이 선출되었다.

조합의 업무구역은 천안, 온양, 천안, 아산, 연기의 2개시 3개군으로 하며 출자규모는 1좌이상 3,000좌 이내로 하고 출자1좌는 3,000원이다. 천안지역에도 양계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출범하여 이 지역 양계인들의 권익 옹호에 일익을 담당하리라 보지만 천안지역 역시 육계

업자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조합이 탄생되어 육계업자도 조합에 참여하거나 또는 육계업자만의 조합이 필요하다 하겠다.

- 주소 : 천안시 원성동 428
- 전화번호 : 천안 62-3944

■ 전북양계협동조합 창립총회



(가)전북양계협동조합 창립총회가 지난 8월17일 오후 2시 전주 대륜예식장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정관(안),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서(안)의 채택으로 진행되었으며 채택된 정관에 따라 임원선출이 무기명비밀투표로 이루어져 ▲조합장 : 이기동, ▲이사 : 소진성(금오), 이현진·김일권(익산), 서병문(춘강), 김상철(신흥), 박옥룡·김경은(전·완주), ▲감사 : 윤덕영(완주), 박동규(군산)씨 등이 각각 선출되었다.

본격적인 사업시행은 설립인가가 있어야 하겠지만 9월부터 기초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에 있으며 연말까지 조합원을 300명 선까지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다.

전북의 채란양계 생산능가는 약 360군데로 1일 계란 생산량이 1백8만개로 추정하고 있어 이들이 대거 참여할 경우 협동조합 운영은 순조로울 것 같다.

■ 전국낙농업협동조합연합회

—정부에 사료값 인상조치 철회 건의—

전국낙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16일 최근 배합사료업체들이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배합사료가격을

일반적으로 올린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 사료업체 스스로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인상조치를 철회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농림수산부 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또한 사료업체들의 사료가격 인상요인을 없애거나 최소화 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밀, 옥수수, 콩 등 사료곡물의 관세를 인하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낙농조합은 이 건의서에서 현재 독과점적 생산여건과 불완전한 경쟁상태에서 사료업체들이 일률적으로 사료가격을 인상시킨 것은 불공정행위라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사료업체가 독과점적 횡포를 부려 양축농가의 소득이 사료업체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 '88년도 1/4분기 사료검사 결과

농림수산부는 '88년도 1/4분기 사료검사결과를 집계분석하여 공장별 위배사료 내역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배합사료

공 장 명	사 료 명	위배사항	행정처분
한성사료	어린송아지	조단백 부족	과 정 금
동향유량	종 계	칼 스펀 부족	〃
미원이천공장	중송아지	조단백 부족	〃
부천축협	젓먹이돼지	〃	〃
신촌사료	산란초기	〃	〃
퓨리나코리아(부천)	젓먹이돼지-1	〃	〃
퓨리나코리아(부천)	육성돈-2	〃	〃
한일사료	젓먹이돼지-1	〃	〃
한일사료	포 유 돈	〃	〃
퓨리나코리아(군산)	종계(육계)	〃	〃
동서농산	착유(3)	〃	〃
녹십자의약품	축우용대용유	〃	영업정지(1개월)

단미사료

공 장 명	사 료 명	위배사항	행정처분
사조산업(오룡호)	어분상품	수분초과	과 정 금
한성기업(대성호)	어분상품	조회분초과	〃
한성기업(대성호)	어분상품	조회분초과	〃
한성기업(대성호)	어분상품	조회분초과	〃
한성기업(준성호)	어분중품	수분초과	〃

한성기업(준성호)	어분상품	조회분초과	〃
한성기업(준성호)	어분상품	표시위반	〃
한성기업(준성호)	어분상품	단백질부족 수분초과	〃
남북수산(남북호)	어분중품	자체품질검사미 실시	〃
협성사료	어분 3급	토사초과	〃
한양화학공업사	혼합광물질	나트륨부족	〃
승화기업	황산칼슘	유황부족	〃
중안산업사	어분 58	조단백부족	〃
중안산업사	어분 58	조단백부족	영업정지 1개월
서울농산	육 분	조단백부족	〃
(주)삼주	석 회 석	토사초과	과 정 금
(주)대유 여천	어분-2	토사초과	〃
(주)대유 여수	어분-2	토사초과	〃
머 성	어분-2	토사초과	〃
충무산업	어분-2	토사초과	〃
한두교역	규산염제	산화알미늄부족	〃
한두교역	규산염제		〃
한두교역	규산염제		〃
한두교역	규산염제		영업정지 1개월
한두교역	규산염제		〃
동건산업	석회석	칼슘부족	과 정 금
삼천포수산	어분-2	조단백부족	〃
문교화학	광물질첨가물	납초과	〃
남해개발	어분-2	토사검출	〃
중앙산업	어분-3	토사검출	〃

■ 수의 · 축산기초과학 학술세미나



축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에 대응키 위해 지난 8월17일

농촌진흥청내 가축위생연구소(소장 박근식)에서 축산 관련자 1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의 · 축산기초과학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발표자 및 발표 내용은 △방출조절성 제형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정서영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 △면역시스템에 대하여—정가진 교수(서울대학교 자연대학), △성장호르몬의 작용기전과 투여시 문제점—정정수 교수(충북대 축산학과), △유선조직의 발달과 유단백질 유전자의 발현조절 메카니즘—최유재 교수(서울대 축산학과), △돼지 MHC유전자의 다형현상과 경제형질과의 연관성분석—정영철 부장(선진축산(주))이 각각 발표했다.

■ '88년도 한국농업과학협회 심포지움 개최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 · 농촌발전 전략—

지난 8월5일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한국농업과학협회(회장 오봉국) 주최로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 · 농촌발전 전략에 대한 심포지움이 열렸다.

주제발표에는 김준보박사(한국농업경제학회 명예회장, 학술원 원로회원)가 「국제개방정책과 농업 · 농민 문제」를 가지고 발표하였으며, 심포지움은 제1, 제2발표장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제1발표장

1. 개방화에 따른 원예작물의 대응방안—이정식 교수(단국대)
2. 수입개방에 따르는 임업의 과제와 발전책—박태식 교수(서울대)
3. 개방화에 따른 곡류생산전략—조장환 교수(단국대)
4. 개방화에 따른 유량생산전략—권신한 교수(경희대)
5. 개방화에 따른 식물검역 대응방안—심성변 과장(국립식물검역소)

○제2발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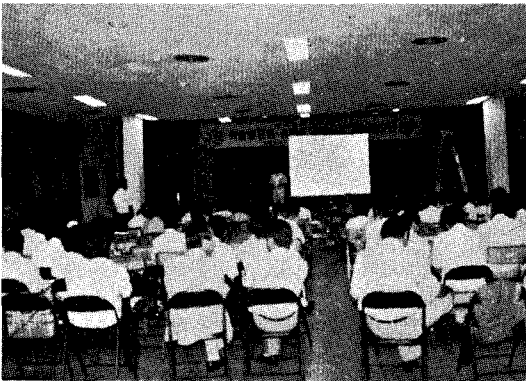
1. 개방화 추세와 한국농업의 대응—문팔용 교수(건국대)
2. 개방화에 따른 농촌인력개발 전략—이무근 교수(서울대)
3. 양봉산물의 수입개방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유영수 국장(한국양봉협회)

4. 생사·견 수급을 위한 대책—남중희 교수(서울대)

5. 한국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김강식 차장(농촌진흥청)

■ 한국영양사료학회 세미나 개최



한국영양사료학회(회장 한인규) '88년도 전반기 기술강습회가 지난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사료업계 등 관심있는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첫날인 18일에는 학술발표회(반추영양 10편, 단위영양 10편) 및 기술세미나, 19일에는 학술발표회(사료 가공 8편)와 학회총회, 기술세미나가 각각 개최되었다.

한국부화협회 창립



한국부화협회는 지난 8월 12일 교통회관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양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회원상호간 친목도모와 초생추의 조사통계 및 생산조절에 관한 정보교환으로 부화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은 GPS농장 현황 파악 및 PS분양과약, 종계수입조절사업, 초생추 생산조절사업, 소비홍보기금 조성사업 등이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구성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박준영(한협축산)
- 부회장 : 서정환(대구 천호부화장)
송두진(전남 지산부화장)
배성황(충남 삼화농원)
이건일(경기북 봉림부화장)
- 감사 : 손종현(신진부화장)
- 고문 : 김진영(봉산부화장, 민정당의원)

■ 축산물유통사업단 발족

축산물의 수입업무를 담당할 축산물 유통사업단이 박철우 축협중앙회 이사를 단장으로 하여 8월1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축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식생활개선범국민운동본부가 1백만원씩 출원하여 설립된 유통사업단은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통해 양축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범위는 축산물 수출입, 축산물 교역에 따른 국제협력,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그간 축산업자들의 결사적인 쇠고기 수입반대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을 수입하기 위한 유통사업단의 발족은 농민을 실망시켰고 또한 수입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잇권다툼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농민들의 마음을 참담하게 까지 했던 일을 생각하여 시대적 기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발족이 되었다면 설립목적대로 보다 국내 축산업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가축질병예찰협의회 개최

지난 8월20일 제62차 가축질병예찰협의회가 전남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개최되어 닭뉴캐슬 방역대책과 돼지 질병대책에 대해 토의하였다.